

김정일 위원장 당사업 개시 40돌 중앙보고대회 개최

1. 개 요

- 북한은 6.19 김정일 당사업 개시('64.6.19) 40돌을 맞아 [4·25 문화회관]에서 당·군·정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[중앙보고대회]를 개최하였음.(중앙 TV 등)

- 사회 : 정하철(당 선전담당 비서), 보고 : 최대복(당 비서)

※ 북한은 5.21부터 대내외적으로 충성의 맹세모임, 영화감상회 등의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등 경축분위기를 조성하여 왔으며, 중앙보고대회 이후에도 평양시 청년학생 경축야회, 인민보안성 청년전위 경축야회, 국방위원회 악단과 이탈리아 독창가 합동경축음악회, 6·19경축 김정일화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

2. 주요보고 내용

- '64. 6.19은 조선노동당이 대를 이어 '백두위인'을 높이 모신 날, 위대한 계승의 역사가 펼쳐진 뜻깊은 명절임.
- 김정일 위원장은 전군 주체사상화 기치 밑에 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군대를 수령의 군대, 당의 군대로 발전시켜 당과 군대의 혼연일체를 확립하였고
- 국제적 환경변화 아래 반제군사전선의 중요성을 인식, 선군정치 방식을 채택하였음.

- 우리는 김정일 동지의 업적을 이어받아
 - 선군정치 방식으로 경제건설을 밀고 나가 국방공업 우선 하에 경제과학전선에서 비약적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기하면서
 - 6·15 공동선언에 따라 민족공조로 조국통일을 실현해 나갈 것임.

3. 평 가

- 금번 중앙보고대회는 김정일 중심의 일심단결을 통한 통치기반 공고화 및 체제결속을 위한 정치행사로
 - 북한은 이번 행사에서 김정일의 당사업 개시가 후계자로서의 위상 구축을 위한 첫 시도였음을 밝히면서
 - 후계자로서의 위상 구축에는 당을 중심으로 한 사상적 일색화, 당과 군대에 대한 유일적 영도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는 바,
 - 향후 김정일 후계자의 경우에도 선군사상 중심의 사상적 일색화와 당을 중심으로 한 영도체계 확립 작업이 뒷따를 것으로 전망됨.
- 앞으로도 북한은 '당과 군대의 혼연일체,' '혁명전통,' '혁명적 군인정신,' 및 '수령결사옹위 정신' 등을 집중 부각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됨.